

1930년대 중국의 한인아나키스트와

한인아나키스트단체

-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과 육삼정 의거 -

박 환*

- I. 서언
- II. 의열투쟁의 전개
- III. 육삼정 의거와 그 의미
- IV. 결어

<국문초록>

192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무정부주의 사상이 수용된 이래 무정부주의자들은 1924년에는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그리고 1928년에는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을 각각 결성하여 활발하게 대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서 일제의 만주침략 등 대륙침략이 더욱 노골화되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정부주의자들은 일제에 대항하여 보다 실제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1930년대 중국 본토에서 좌우익에 의한 정당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일체의 정치운동을 배격하는 무정부주의 이념을 표방한 무정부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다. 또한 1931년에 조직되어 1937년에 조선혁명자연맹으로

* 전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전적인 해체를 하기 전까지 7여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항일투쟁은 의열단·한인에국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활발하였다. 아울러 『남화통신』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정부주의 이념을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36년에 중일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자 민족전선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하여 대일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남화한인청년연맹은 1930년대에 중국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무정부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민족통합운동, 나아가 1930년대 해외독립운동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추진한 대표적 활동인 육삼정의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의거는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어 국내외에 한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사변이후에도 우리민족의 항일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핵심어 : 남화한인청년연맹, 육삼정의거, 남화통신,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이규창

I. 서언

1920년대 초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무정부주의 사상이 수용된 이래 무정부주의자들은 1924년에는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그리고 1928년에는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을 각각 결성하여 활발하게 대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의 만주침략 등 대륙침략이 더욱 노골화되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무정부주의자들은 보다 실제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하였다. 이 단체

는 1930년대 중국 본토에서 좌우익에 의한 정당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일체의 정치운동을 배격하는 무정부주의 이념을 표방한 무정부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다. 또한 1931년에 조직되어 1937년에 조선혁명자연맹으로 발전적인 해체를 하기 전까지 7여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항일투쟁은 의열단·한인애국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활발하였다. 아울러 『남화통신』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정부주의 이념을 선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36년에 중일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자 민족전선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하여 대일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남화한인청년연맹에 대한 검토는 1930년대에 중국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무정부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민족통합운동, 나아가 1930년대 해외독립운동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¹⁾

이에 본고에서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과 이 단체의 대표적인 활동인 육삼정의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 이는 1930년대 중국에서

- 1) 아나키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구승희 외, 『한국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들의 독립투쟁-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2008.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연대와 교류-적자생존에서 상호부조로』, 창비, 2010.
 이덕일,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웅진닷컴, 2001.
- 2) 아나키스트들의 의열투쟁에 대하여는 이호룡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호룡, 「일제 강점기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테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35, 2003.

활동한 한인아나키스트들과 한인아나키스트 단체들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

1.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과 혁명계획

1931년 9월 만주사변 직후에 상해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이라는 무정부주의 단체가 조직되었다.⁴⁾ 아울러 그 산하에 남화구락부를 두었으며,

-
- 3) 최근 육삼정의거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히 원심창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 24, 2010.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9, 백범학술원, 2012. 박찬승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이민호, 『열도의 독립운동사 의사 원심창』, 통일일보, 2022.
- 4) 성주현은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 24, 2010, 91쪽에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이 1930년 4월에 조직되었으며, 1931년 9월은 정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주, 『조선통치사료』 10, 870~871쪽에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이 1930년 4월 20일에 조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1930년 4월 20일 유자명·장도선·정해리·유기석 등이 상해 金神父路 新新里 某 중국인 방 2층에서 회합을 갖고 그 활동기관으로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하고 선언문·강령·규약 등을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하기 위한 초보적인 예비모임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1930년 4월경은 신현상·최영석 등이 충청남도 천안읍 호서은행에서 5만 8천원을 가지고 상해에 와 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에서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무정부주의운동을 활성화 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곧 신현상·최석영 등이 친전 일본 영사관 경찰에 의해 체포됨으로서 그러한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실질적으로 조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더구나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화암, 그리고 이규창 등도 만주사변 후에 조직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김학준 편집해설·이정식 면담, 앞의 책, 316~317쪽; 『이규창 자서전』, 필사본, 1990, 578~588쪽). 또한 또 다른 일본측 기록(『사상회보』 5, 111쪽)에서도 1931년에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조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조직은 만주사변 이후가 아닌가 한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조직에 참여한 정해리의 경우 鄭鍾華로 불리우며, 그의 부친이

기관지로서 『남화통신』을 간행하기로 계획하였다.⁵⁾

남화한인청년연맹은 그 결성과 아울러 규약과 강령을 발표하였다. 그 중 규약은 모두 10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은 강령에 의해 사회혁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함.
2. 본 연맹은 강령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맹전체가 승인하는 모든 방법을 채용하고, 다만 강령에 저촉 안되는 본 연맹 각 개인의 자유 발의 및 자유합의에 의한 행동은 설령 본 연맹에 직접 관여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간섭을 안 한다.
3. 본 연맹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강령에 찬동하고 모든 맹원의 승인을 얻은 남녀로서 조직함
4. 본 연맹 일체의 비용은 맹원이 부담함.
5. 본 연맹의 집회는 年會, 月會, 임시회로 하고, 다만 소집은 書記部에서 담당함.
6. 본 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부를 둬. 단 맹원 전체의 호선에 의해서 선거한 서기 약간 인을 두고 그 임무는 각 1년으로 함.
7. 연맹원으로서 강령을 어기고 규약을 파괴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모든 맹원의 결의를 거쳐 제명함.
8. 연맹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음.
9. 연맹원은 회합시 출석자 전체가 이미 승인할 때에 한해서 결석할 수 있다.
10. 본 규약은 매년 대회에 있어서 토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수정안으로부터 정정함을 얻음

독립운동가 鄭在洪이라고 한다. (독립기념관 김형목박사의 교시)

5)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134쪽.

규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사회혁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강령에서도,

1. 우리들의 모든 조직은 자유연합의 원리에 기초함.
2. 일체의 정치적 행동과 노동조합지상운동을 부인함.
3.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함.
4. 僞도덕적 종교와 가족제도를 부인함.
5. 우리들은 절대 자유 평등의 이상적 새로운 사회를 건설함.

라고 하여,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자유연합의 원리에 기초한 절대 자유 평등의 이상적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남화한인청년연맹은 1931년 만주사변 직후 상해에서 재중조선인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무정부주의 단체라고 하겠다.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을 해방시킨 후 무정부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맹의 일차적인 과제는 일제로부터 조선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중직접혁명론을 추구하였던 것 같다. 「선언문」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철퇴를 탈출하는 우리는 민중 자신의 손으로 진실한 자유와 평등과 우애에 기초한 신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민중의 진실한 자유를 탈환하기 위해서 싸우는 형제자매들⁶⁾

라고 있듯이 민중자신이 진실한 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싸워서 민중 자

6) 조선총독부 검사국 사상부, 『사상휘보』 5, 114쪽.

신의 손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선언문」에서,

민중여러분, 전사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맹렬한 不撓의 직접행동은 반드시 멀지 않은 장래에 자유를 획득할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⁷⁾

라고 하여 “맹렬한 不撓의 직접행동”을 그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던 남화한인청년연맹은 민중직접혁명론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개인 폭력투쟁을 통하여 민중직접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정부공단주의도 추구하였다. 강령에서 “노동조합지상주의를 거부함”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다 보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또한 자본가들과 결탁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지상주의처럼 현실적인 이익 추구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무정부공산주의 사회를 이상으로 내세우는 무정부공단주의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남화한인청년연맹은 이처럼 행동양식으로 민중직접혁명론과 무정부공단주의를 추구하였으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의열투쟁·자금조달·선전활동 등에 그 활동이 국한되었다. 특히 1930년대의 의열투쟁은 1920년대 재중한인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과는 다른 일면이라고 생각된다.⁸⁾

한편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활동을 위하여 조직을 갖추었다. 결성시에 발표한 10개조의 규약 가운데 그 일부를 보면,

7) 위와 같음.

8)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 운동사』, 선인, 2005. 참조.

- ① 본 연맹은 강령에 의해 사회혁명을 수행할 것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본 연맹의 집회는 년회, 월회, 임시회로 하고 , 다만 소집은 書記部에서 담당함
- ③ 본 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부를 둬, 단 맹원 전체의 호선에 의해서 선거한 서기 약간 인을 두고 그 임무는 각 1년으로 함.⁹⁾

라고 있듯이, 서기부를 두어 집회의 소집, 사무의 처리 등을 담당하였다.

II. 의열투쟁의 전개

남화한인청년연맹이 조직된 직후인 1931년 11월 상순에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의 간부인 중국인 王亞樵와 華均實 등이 중국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조선인 아나키스트들인 이회영·백정기¹⁰⁾·정화암¹¹⁾ 등을 찾아와 무력해진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에 대신할 조직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동년 11월 중순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한국에서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회영·정화암·백정기 등 7명과, 중국측에서는 왕아초·화균실 등 7명, 일본측에서는 田華民(佐野)·吳秀民(伊藤) 등이 참석하였다.¹²⁾

이렇게 조직된 항일구국연맹에서는 선전·연락·행동·기획·재정 등

9) 조선총독부 검사국 사상부, 『사상휘보』 5, 112쪽.

10) 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항일혁명투사 구파 백정기』, 2009.

11)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자유문고, 1982. 정화암은 해방후 4.19혁명기 사회대중당에서 총무위원으로 활동한다. (김남태, 「사회대중당의 성립과 노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2014)

12) 김학준 편집해설·이정식 면담,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민음사, 1988. 319쪽.

의 5부를 두고 각 부에 위원 약간 명을 두기도 하였다. 당시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회영은 기획 위원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 ① 적 군경기관 및 수용기관의 조사 파괴, 적 요인의 암살, 중국 친일분자의 숙청
- ② 중국 각지의 배일선전을 위한 각 문화기관의 동원 계획의 수립
- ③ 이상에 관한 인원 및 경비의 구체적인 설계

항일구국연맹에서는 이의 실행을 위해 동년 11월 중순¹³⁾ 프랑스 조계浦石路 桂洛里, 당시 남화한인청년연맹의 백정기의 주거지에서 소위 흑색공포단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조직인 행동대를 조직하였다.¹⁴⁾ 이 단체는 ‘현사회의 모든 권력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 전 인류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강령으로 하였다.¹⁵⁾ 그리고 정화암과 이회영이 이 단체를 지휘하였으며, 중국 측의 왕야초가 그 경비를 담당하였다.¹⁶⁾ 흑색공포단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구성원들 외에 일본·대만·중국인도 참여한 단체였다.¹⁷⁾ 그러나 실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동대원들은 대부분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구성원들이었다.

흑색공포단은 경제부·정보부·선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제

13) 『소화특고단암사』 상, 81쪽에서는 1931년 12월에 조직되었다고 하고 있다.

14)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2, 607쪽.

동아일보 1933년 11월 11일자,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상해의 국제흑테러단 유길공사모살범 백정기 등 예심취조로 정체발로(1)>

15) 김정주, 앞의 책, 871~872쪽.

16) 김학준 편집해설·이정식 면담, 앞의 책, 320쪽.

17) 김정명, 앞의 책, 607쪽.

부의 책임자는 왕아초이며, 구성원 중 중국인은 왕아초·화균실·毛一波 외에 5, 6명이며, 일본인으로는 吉田·佐野一郎 등이었다. 정보부의 책임자는 알 수 없으며, 구성원은 대만인으로는 林成材, 조선인은 이용준¹⁸⁾·이수현·백정기¹⁹⁾·양여주·김지강·이달·이강훈²⁰⁾·엄형순 등이다. 선전부 역시 책임자를 알 수 없다. 즉, 일본·중국인들은 재정·선전 등을 담당하였으며,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구성원 들은 정보부를 담당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남화한인청년연맹원들은 행동대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항일구국연맹의 흑색공포단의 활동은 곧 남화한인청년연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항일구국연맹의 흑색공포단은 활동계획에 따라 우선 적의 기관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 우선 북경에 있는 일본 군부와 일본총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10월 중순경 상해 프랑스 조계 북이리로 이용준과 백정기의 주거지에서 북경에서 상해로 온 유기석과²¹⁾ 이를 계획하였다. 당시 유기석은 북경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으로 福建省 泉州城내의 중국인 무정부주의자 秦望山으로부터 8천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석과 이용준과 원심창은²²⁾ 북경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북경에서 실현될 가망이 희박하였다. 왜냐하면 북경에는 만주에서 온 張學

18) 이동언, 「여산 이용준의 생애와 항일독립투쟁」, 『제천 애국지사 이용태의 삶과 사상』, 역락, 2005.

임용식, 「애국지사 이용준과 아나키즘」, 『내제문화』, 2004.

19) 양자추, 「백정기군을 회상한다」, 자유연합신문 1934년 6월 5일.

20) 남경 양자추, 「이강훈을 생각한다」, 자유연합신문 1934년 7월 5일.

21) 유기석에 대하여는 다음의 논문과 자료집이 참조된다.

최기영, 「1920-30년대 유기석의 재중독립운동과 아나키즘」,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12.
국가보훈처, 『30년 방랑기-유기석 회고록』, 2010.

22) 양일동, 「원심창전」, 자유연합신문 1934년 8월 5일.

良 군대 30만여명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1932년 12월 11일 경 그들은 활동지역을 天津으로 옮겼다. 그리고 동년 12월 13일 경 폭탄을 던질 대상으로 천진 일본 주둔군의 병영과 천진 일본총영사관 관저를 선정했다. 그리고 동월 16일 오후 6시 30분을 기해 유기석은 병사에, 이용준은 관저에 폭탄을 던지고, 원심창은 상해의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월 16일 오후 6시 30분 경 영국조계 빅토리아 공원 내에서 일본총영사관 관저에 이용준이 수류탄을 던졌으나 벽돌담 외측 하부에서 폭발하고 말았다.²³⁾

아울러 남화한인청년연맹 및 흑색공포단에서는 복건성 천주에서 일본의 厦門 영사관을 폭파하였으며,²⁴⁾ 유기문이 1932년 12월 천진에서 일본의 군수물자를 싣고 들어온 기선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적중하지 못하여 바다에 떨어졌다.²⁵⁾

항일구국연맹의 두번째 목표는 적의 요인 암살이었다. 적 요인의 암살 사건으로는 주중일본공사 有吉明공사의 암살 기도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일본의 육군대신 아리끼(荒木貞夫)가 주중일본공사 有吉明에게 거금 4천만원을 주어 중국으로 파견하여 중국의 패잔군벌과 국민당 내의 인사들을 포섭하려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당면 목적이 국민정부 하여금 반만항일운동을 취체 또는 무마시킬 것, 熱河省에서 항일운동을 중지시키도록 할 것, 한인의 항일운동자를 취체하는 데에 협력할 것 등임을 알게 되었다. 만약 일제의 뜻대로 타협이 성립된다면 한·중 양국민의 운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바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가 1933년 3월

23) 독립운동편찬위원회, 『독립운동자료집』 11, 847~848쪽.

24) 외무성 경찰국, 『조선민족운동사』(미정고) 6, 856~857쪽.

25)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341쪽.

17일 상해 공동조계 文路에 있는 일본인 경영의 고급 요정인 六三亭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에 1933년 3월 17일 흑색공포단원인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등은 이곳에서 유길공사의 송별회가 개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사의 자동차에 폭탄을 던질 것을 시도하였다.²⁶⁾ 그러나 흑색공포단의 이러한 계획은 사전에 계획이 폭로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등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구성원들이 체포되었고, 그 결과 백정기와 원심창은 무기징역을, 이강훈은 징역 15년을 언도받았다.²⁷⁾

한편 이회영은 1932년에 만주로 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武藤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는 단신으로 1932년 11월 중순 大連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대련에 도착 즉시 대련수상경찰서의 특무요원에게 피체되어 계획을 실행해보지도 못한 채, 동년 11월 11일에 고문 끝에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²⁸⁾

또한 항일구국연맹의 행동대에서는 南京政府의 외교부장인 汪精衛를 저격하고자 하였다. 그는 대일 柔弱外交를 거듭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화균실, 전화민 등과 이용준이 상해 북군침에서 왕을 저격하였으나 그는 무사하고 그의 부관만을 살해하였다.²⁹⁾

친일분자의 숙청은 대단히 활발하였다. 延忠烈, 李圭瑞의 제거, 玉觀彬, 玉成彬의 암살, 상해 조선인 거류민단의 고문인 李容魯의 암살, 밀정 李鍾洪의 암살 등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겠다.

연총결과 이규서는 이회영이 일본관헌에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밀고 혐의로 1932년 7월(음력) 상해 南翔 立達學院 부근 남상역 철교에서 麻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825쪽.

27) 외무성 경찰국, 앞의 책, 885쪽.

28) 줄고, 「이회영과 그의 민족운동」, 『국사관논총』 7, 1989, 246쪽.

29)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40~341쪽.

繩으로 교살되었다. 중심인물은 정화암, 이달, 백정기, 원심창, 주열, 이수현 등이며, 실행한 인물은 오면직 등이었다.³⁰⁾

옥관빈의 암살사건은 1933년 1월 8일 상해 중국인 거리에서 이루어졌다. 옥관빈은 佛慈藥 회사, 三德洋行의 주인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인물이었으며,³¹⁾ 구한말에는 서북학회 회원, 105인 사건 등에도 연루된 항일적인 인물이기도 하였다.³²⁾ 그런 그가 독립운동기관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본군대를 위하여 약 2만원의 재물을 제공하였으며, 일본 관헌에게 혁명운동에 관한 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³³⁾ 이에 김구, 안공근 등 임시정부측에서도 옥관빈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는 윤봉길 의거 이후 국민당 정부로부터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자금은 있었으나 일을 수행할 마땅할 인물이 없었다. 이에 임시정부측에서는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정화암 등과 논의하여 “鋤奸團”을 조직,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구성원들로 옥관빈의 제거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엄순봉은 그의 종형 상해 프랑스 조계 望志路 南永吉리 거주 옥성빈의 집 앞에서 1933년 8월 1일 권총으로 사격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케 하였다. 이에 서간단의 명의로 김구계열에서 ‘역적 옥관빈의 죄상을 폭로한다’라는 제목으로 참간장을

3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825쪽.

31) 위의 책, 125쪽.

32) 위의 책, 550쪽.

33) 옥관빈의 밀정설에 대하여 최근 학계에서 연구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윤경로는 밀정설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광제는 밀정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김광제는 “서로 다른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나 독립운동자금 제공 거부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밀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밀정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고 실증적인 검토작업이 요망된다. 윤경로, 「105인 사건 피의자들의 사건 이후 행적에 관한 소고-친일로 경도된 9인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6,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2.

김광제, 「상해시기 옥관빈 밀정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3, 2012.

프랑스 조계의 거주 조선인과 중국 신문에 배포하였다.³⁴⁾

옥성빈의 암살은 1933년 12월 18일 오후 6시 프랑스 조계 金海山 金文熙방 입구 길가에서 있었다. 옥성빈은 옥관빈이 살해되자 복수를 위하여 프랑스 조계 工部局 형사인 점을 이용하여 범인의 수사에 분주하였을 뿐 아니라,³⁵⁾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⁶⁾

이용로는 평안도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한 인물이었다. 상해로 온 이후 임시정부와 흥사단에서 활동하였고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다.³⁷⁾ 그는 상해 조선인 거류민회의 회장으로서는 일본 총영사와 연락을 취하여 독립운동가들의 동정을 총영사관에 제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운동가의 주소를 몰래 탐지하여 체포하기 편하게 적을 도왔으며, 또 상해 재류 조선인을 모두 거류민회에 입회시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범위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었다.³⁸⁾ 이에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1935년 3월 17일 경 이달, 천리방, 정화암, 엄형순 등이 모인 가운데 그를 제거하기로 결의하고 엄순봉³⁹⁾, 이규호⁴⁰⁾ 등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935년 3월 25일 상해 적사위로 유신리 16호 그의 집에서 그를 사살하였다.⁴¹⁾

34) 김정명, 앞의 책, 503 ~ 504쪽.

35) 위의 책, 504쪽.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27쪽.

37) 『이규창자서전』, 738 ~ 756쪽. 원고 형태의 이규창자서전은 뒤에 『운명의 여신』(보편각, 1992)이라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필자가 축사를 쓰는 기회를 가졌다. 이규창 옹고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항상 청년 같으시고 겸손한 분이셨다. 이규창옹의 장인인 만주지역 독립운동가 정이형에 대한 책자를 필자가 간행하는 인연이 계속되었다. 『잊혀진 혁명가 정이형-친일파 처벌법 제정의 선구자』, 국학자료원, 2005. 이규창은 우당 이회영의 아들이자, 초대 부통령 이시영의 조카이다.

38) 김정명, 앞의 책, 552쪽.

39) 조동길, 「엄순봉의사 紀績碑」.

40) 흑색신문 1935년 4월 22일자에서 이규호의 체포 소식을 전하고 있다.

41) 『이규창자서전』, 839 ~ 840쪽.

Ⅲ. 육삼정 의거와 그 의미

1. 육삼정의거

육삼정의거는 1933년 중국 상해에서 백정기, 원심창, 이강훈 등이 중국주재 일본공사 아리요시(有吉明)를 폭살하려 한 사건이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 이후 일제는 상해지방의 한국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하려 하는 한편, 전 중국을 집어삼키려는 군사적·외교적 책략도 펴기 시작했다. 이미 강점한 만주와 熱河지역으로도 모자라 華北지역까지 새로 강점하려 한 것이다.

일본 육군대신 아라끼(荒木貞夫)는 일화(日貨) 4천만 엔(미화 2천만 달러 상당)을 駐中 공사 아리요시에게 맡겨, 중국국민당 내의 친일분자 및 패잔군벌 등을 매수할 음모를 꾸몄다. 중국인끼리의 내분을 조장하여 반만항일운동의 기세를 약화시키고, 한인 독립운동가 탄압에 중국이 협력하게끔 할 목적이었다. 이 공작의 최종 단계에서 아리요시는 거물급 漢奸과 상해 주둔 일본군사령부의 참모·장령들이 자리를 같이하는 연회를 갖기로 하였다.

1933년 3월 17일 밤 공동조계의 일본계 고급요리집 육삼정에서 연회가 있을 것이라는 극비정보는 한 일본인 아나키스트에 의해 남화한인청년연맹원인 원심창에게 제공되었다. 원심창은 1933년 2월 5일, 프랑스조계의 백정기 숙소에 9명의 아나키스트가 모여서 향후의 투쟁 방략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강훈이 폭탄거사를 제의하고 실행을 자임하였다. 백정기와 다른 참석자들도 거사의 실행을 자원하였다. 추첨으로 백정기가 뽑혔고, 백정기는 협동자로 이강훈을 지명했다.

이튿날부터 육삼정 일대의 지리를 조사하고 아리요시의 사진을 구하

여 얼굴을 익혔으며, 아리요시의 승용차 번호까지 외워두었다. 유자명과 정화암이 준비한 권총 2정과 수류탄 1개 외에, 윤봉길의거 때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성능의 도시락형 폭탄 1개가 준비되었다. 연회가 끝나 아리요시가 요리점을 나올 때 이강훈이 대형 폭탄을 투척하고, 수류탄과 권총은 거사 후 적이 추격해 올 경우 백정기가 사용하기로 약정했다.

3월 17일 밤 8시경, 아리요시가 일본군 참모부원과 정객들을 대동하고 삼엄한 경비 속에 육삼정에 도착할 무렵, 백정기와 이강훈은 육삼정 건너 중국요리점 宋江春 2층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나 警視 세하쿠(佐伯)가 지휘하는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원 10여 명이 곧바로 두 사람을 포위해 체포하였다. 거사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현장 부근에 있던 원심창도 체포되었다. 일본인 아나키스트 오오이(大井)의 밀고 때문이었다.

세 사람은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과 취조를 당하고 1933년 7월 5일 예심을 종결하고, 일본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로 압송되었다.⁴²⁾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우리의 행동에 법리적 해석은 부당하다”고 공판변두부터 암흑재판을 거절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⁴³⁾ 백정기와 원심창은 무기징역⁴⁴⁾, 이강훈은 15년형이 선고되었다. 백정기는 1936년 5월 22일 옥중 순국하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동경에서 간행되는 아나키스트 기관지 『흑색신문』에서는 육삼정의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1933년 12월 31일자에서는 두 개면에 걸쳐서 <상해 흑색 테러 단원 3동지 무기연도>, <B.T.P 단원은 왜 有吉 駐華公使 암살을 결의하였는가>, <흑색재판을 거절하며

42) 동아일보 1933년 7월 2일자.

43) 흑색신문 1933년 12월 31일자, 자유연합신문 1933년 8월 10일자 「상해폭탄서건 조선동지 3명 일본으로 이송되다」.

44) 자유연합신문 1933년 12월 10일자 「이 폭압을 보시오!!, 元, 白 兩君 무기징역-상해폭탄사건 暗黒재판」.

공판벽두에 3동지는 절규한다>, <유길명암살준비 착착진행>, <B.T.P. 조직내용>, <B.T.P.사건 이전의 재중한인무정부주의자운동개황, 남화한인 청년연맹>, <3동지의 약력>라는 제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1934년 2월 28일에는 楊子秋의 명의로 <동지 백정기군을 회상함>을, 동년 4월 18일에는 <동지 이강훈군 회상함>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고 있다. 특히 1934년 6월 30일에는 백정기의 죽음을 알리는 글을 1면 정면 가운데 사진과 함께 <絶痛! 백정기 드디어 옥사>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추도하고 있다.

오호! 백군의 가슴에 타오르든 열정은 그 무엇이었으며, 그의 뼈에 사무치는 설음은 그 무엇이었던가!!

그의 눈은 지배의 마수에 걸려 허덕이는 인류의 고민과 조선인의 참패를 보았으며, 그의 정신은 온갖 장애물을 퇴치하고 아나키자유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확신의 결정이었다.

백군의 그 열정과 그 理智는 그다지도 濫良한 백군으로 하여금 몸과 생명을 던져 테러리스트의 길을 밟게 하였다.

동지 백구파의 옥사가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자 잔인한 현실에서 다만 테러리스트의 갈길만이 남아있음을 다시금 覺醒하였다. <상호연대> 다만 이것만이 아나키즘 테러리스트의 순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지배자에게 巨彈이 아니고 무엇이냐!!

오호 백군!

백군의 殉死를 서러함은 백군의 本志가 아니었다.

아울러 흑색신문 1935년 3월 18일자에서는 <3월의 3대사건, 상해 B.T.P. 사건 2주년>을 기념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어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3월 17일 !

이날은 우리가 2년 전에 동지 원심창 이강훈 故백정기 3君을 적의 魔手中으로 보낸 血恨의 날이다.

이 세동지가 일본, 조선, 만주, 支那를 袴下로 동아천지에서 무정부주의 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버은 첩첩한 喜悲話는 이에 다시 말하지 않거니와 三君은 상해를 중심으로 세 개 동지가 결합한 비밀결사 B·T·P(흑색 테러단의 약칭)의 조선인부 단원으로 당시 日滿 일본 만주 支那 삼국을 싸고도는 반동정부자들의 黑幕을 파괴하여 세상에 폭로하고 蔣對일본정부의 음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먼저 駐華日本公使 有吉明을 암살하려다가 희생된 것이다.

故 백정기군은 長崎 諫早감옥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원한과 이 상을 가슴에 품은 채로 - 그를 사랑하고 아끼워하는 모든 동지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고 - 그가 몸을 희생한 인류의 해방은 지배자의 철쇄에 얽힌 채로 있는데 1934년 6월 5일에 원한의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원군과 이군은 아직도 영어에서 어느 날이면 광명의 세계로 나올 날도 알지 못하고 (一行略) 인류가 蛇蝎視하는 감옥 안에서 악랄한 지배자의 手下가 되어 가진 폭악을 다 부리는 간수 등의 질곡을 날마다 目見하면서도 인류사에 대한 오직 한줄기의 희망 사회혁명의 광명을 바라보며 時時로 서적의 주문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후일을 위하여 刻苦의 정신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동지가 하루라도 속히 이 세상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오직 밖에 있는 우리 여러 동지의 철저한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있으며 2년 동안에 이렇다고 말할 만한 전적을 남겨 놓았는가 우리는 맹세하고 새 길을 개척하자!

2. 육삼정 의거의 역사적 의미

육삼정의거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유길명암살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국내외에 한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사변이후에도 우리민족의 항일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특히 조선중앙일보에서는 1933년 7월 11일 <유길공사 암살 계획한 피고 3명 나가사키(長崎)에 이송, 7월 5일 유죄결정>이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멀리 미국에서 간행되던 신한민보 1934년 4월 20일자에서도 <유길공사 암살 계획-밀의 현장 습격하고 폭탄권총을 압수>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둘째, 서울에서 간행되는 일본인 신문 경성일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을 전율케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유길(有吉) 공사를 저격하려던 중대 범인이 체포됨
 <경성일보 제9093호(1933년 3월 21일) 화요일>
 3월 17일 조선인 3명이 휴대한 폭탄 권총 등도 몰수
 상해총영사관 공표 (상해 20일 발)

상해총영사관 당국에서는 수일 전부터 극도로 긴장하여 비밀리에 활동 중이었는데 17일 오후 9시 25분에 이르러 방탄조끼·방탄방패(楯)로 무장 엄중한 태세로 공부국(工部 ; 경찰국) 홍구서(虹口署) 형사의 응원 아래 일제히 무장로(武昌路) 271호 중국요리점 송강춘(松江春)을 엄습하여 마침 동집 2층에서 회식중인 조선인 3명을 체포함과 동시에 폭탄 2개 권총 3정을 압수하였는데, 이상의 조선인 중의 2명은 이날 밤 유길 공사가 6·3정에 올 것이라고 믿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암살하려고 한 중대범인으로 체포된 3명은 홍구서(虹口署)를 거쳐 총영사관 경찰의 손에 넘겨져서 목하 엄중 취조중이다.

국제적 음모단 배후에 잠재 의외의 방면으로 불이 번지려고 함
 폭탄은 작춘(昨春)의 것(윤봉길이 사용한)과 똑같음.

유길 공사 암살을 기도한 조선인 3명을 취조한 결과 경기도 출생 주원훈(朱元勳=元勳의 誤記 28세)과 전북 출신 백구파(白九坡 28세 ; 白(丘+鳥)坡 37세의 誤記) 강원도 출생 이홍훈(李弘勳 22세 ; 李康勳 31세의 誤記)으로 탄명 작년 봄 신공원 폭탄사건의 하수인이 휴대한 것과 똑 같은 도시락형의 폭탄 1개, 권총 브로닝형 9연발·7연발 각 1개, 탄환 95발도 범인과 함께 압수 목하 그 출처를 엄중 추궁중이다.

그들의 배후에는 상당히 유력한 국제적 음모단이 잠재한 듯하고 또 작년 봄 신공원 사건(일본 왕의 생일날 백천대장 등 여러 놈을 살상한 윤봉길의 의거)의 김구 일파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취조 진행에 따라서는 의외의 방면으로 불이 번져질 듯하다. 또 범인중의 주원훈(朱元勳 ; 원훈(元勳)의 오기(誤記)임은 작년 11월 천진 총영사관 폭탄 사건에 관계가 있는 모양이다.

셋째, 육삼정의거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끊임없이 전개된 의열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제의 만주침공을 계기로 국내외 독립 운동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의열투쟁이었다. 이는 다음의 일본측 보고에서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⁴⁵⁾

100. 최근 불령선인의 흉폭 행위 개요

최근 상해를 책동의 근거지로 하는 불령선인의 테러 사건은 소화7(1932)년 1월 이봉창 불경사건 발발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여 같은 해 4월 윤봉길 상해 폭탄 사건, 동 5월 최홍식, 류상근의 국제연맹 릿쯔조사단 암살미수

45) 김정명편, 『조선독립운동』 II, 549-552쪽.

사건 등 중대사건이 속발하였다. 이들 사건은 다행히 우리 파견 관헌의 노력에 의해 전부 검거되었지만, 그 후 소화8(1932)년 8월 1일 상해에서의 친일파 조선인 옥관빈 암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래 계속해서 그 해 그 달 17일 일본측 밀정 石鉉九의 암살 사건 및 그해 그달 31일 상해 조선인 親友會長 柳寅發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 또 같은 해 12월 18일 프랑스 工部局 형사 玉成彬의 암살 사건이 발생한 이래 파견된 우리 관헌은 예의 이범인 수사 검거에 힘써 왔다.

때마침 같은 해 9월 8일 전기 유인발 암살 미수사건의 범인 金益晷을 검거하였는데 체포 장소가 廣東으로 향해 출범 준비 중인 중국 배 안이었으므로 일단 중국 측의 취조에 부쳤다. 범인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하루하루 경과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올해 들어와 다시 3월 25일 상해 조선인거류민회 고문 李容魯 암살사건이 발발하였고, 달을 넘겨 11월 7일 일본 측 밀정 李泰瑞 암살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때마다 범인 검거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위 각 사건 중 유인발 암살 미수 사건의 범인 김익성은 그 후 우리 측의 각종 자료 제출과 재삼에 걸친 강경한 요구에 의해 지난해 12월 15일 마침내 중국 측으로부터 신병 인도를 받아 취조 중인데 점차 범죄사실이 명료하게 됨으로써 올해 1월 23일 신병을 조선 당국에 이송하였다.

한편 이용로 암살사건의 범인으로서 3월 25일 金萍根 및 嚴亨淳, 즉 嚴舜奉, 李圭虎의 두 사람은 그날로 상해공안국에 체포되고 엄은 그날로, 이는 4월 11일 각각 인도받아 취조하였더니 범죄사실이 명료하였다. 더욱이 위 두 사람은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검거, 취조 중인 무정부주의자 李丁圭 일파와 연락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사건 처리의 편의상 5월 25일 신병과 함께 사건을 조선 당국에 이송하였다.

최근 상해를 중심으로 발발한 불명선인 관계 테러사건의 개요를 약기하면 다음과 같다.

有吉 공사 암살음모사건

소화 8년 3월 17일

소화 8년 3월 17일 상해

경기 원심창(당28세) 남화한인청년연맹 간부 및 흑색공포단원 정화암을 통해 안공근, 김구 등의 사주에 의한 듯함. 有吉 중국 주재 공사를 암살하려고 폭탄 1개, 수류탄 1개, 권총 2자루를 준비하였으나 결행 직전 검거함 강원 이강훈(당31세), 전북 백정기(당37세)

1930년 전후는 독립 운동 전반이 쇠퇴하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또 중국 전역에서 항일 운동이 일어나 동북의용군이니 요녕의용군 등이 조직되었고, 한편 민중의 쫓겨 대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기회에 독립 운동에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의열투쟁을 추진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특무 공작을 추진하여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고, 남화한인청년연맹에서는 천진 주재 일제의 병영 영사관저를 폭파하는 투쟁에서 육삼정 의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시기적으로 극히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육삼정의거에 참여했다 피체되었던 이강훈은 이정식 교수가 의거에 대한 생각을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당시 의열투쟁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된다.

테러는 목숨을 걸고 하는 폭력행위라 마지막에 한번 하는 거지요. 테러란 사실 나쁩니다. 그러나 왜놈들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밖에는 우리가 테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안 준다거나 또는 왜놈하고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침략 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테러가 불

가피했으므로, 우리의 테러는 최고의 휴머니티를 가진 것이고 거기에 테러의 진정한 의미가 있지요⁴⁶⁾

넷째, 국제적 연대하에서의 의열투쟁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9월 중순 한국인 아나키스트와 중국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결성된 중한청년연합회라는 중한합작단체로 이어졌다. 그 후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정세가 급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화한인청년연맹도 유자명⁴⁷⁾·유기석 등에 의해 조선혁명자연맹으로 개조되었다.

IV. 결어

지금까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과 육삼정의거를 중심으로 1931년 만주사변 발발이후 중국지역에서 활동한 한인 무정부주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1930년대 전반기중국지역에서 활동한 한인무정부주의 자들과 한인단체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의 만주침략에 대하여 독립운동의 3대 세력 가운데 하나였던 무정부주의자들도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결성한 것이 남화한인청년연맹이다. 이 단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해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에 있는 한인청년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46) 이정식,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민음사, 2005, 534쪽. 이강훈은 2003년 11월 12일 사망하였다. 필자는 1985년부터 이강훈선생을 여러 차례 만나 면담을 가졌다. 당시 이강훈이 만주에서 활동했던 신민부에 대하여 석사논문을 쓰고 있었다. 이강훈옹이 작고하신 영결식장에서 필자가 소장하고 있던 육성녹음이 서울보훈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에 올려 퍼졌었다.

47) 독립기념관, 『유자명 수기-한 혁명자의 회억록』, 1999.

둘째, 일제의 만주침략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침략이다. 이를 인식한 한인청년들은 동병상련에 처해있던 중국인 청년들과 단합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항일이라는 공동기치하에 한국과 중국인들이 단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사상적으로도 함께 뭉칠수 있었던 것이다. 그 공동의 이념이 바로 무정부주의였고, 무정부주의의 상징인 검은색은 단체의 명칭이 될 수 있었다. 흑색공포단이 바로 그것이었다.

셋째, 남화한인청년연맹의 대표적인 활동은 육삼정의거였다. 그러나 이 의거는 결국 실패했다. 1930년대 살얼름을 걷는 듯한 살벌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 의해 계획된 시나리오에 결국 걸려든 꼴이 되고 말았다. 상해에서 의열투쟁을 전개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젊은 청년들은 체포되었고, 백정기처럼 옥중에서 순국한 지사도, 해방 후 일본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한 원심창같은 인물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광복회에서 활동한 이강훈도 있었다.

넷째, 1920년대 중국에서 활동한 한인무정부주의자들은 주로 무정부주의단체를 조직하여 기관지 발행 등 사상활동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만주사변이후에는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이념이 다른 동포들과의 연대 및 중국인들, 일본인들 등 반제국주의,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여러 민족들과의 연대투쟁도 전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경성일보

동아일보

흑색신문

자유연합신문

구승희 외, 『한국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김명섭, 『한국아나키스트들의 독립투쟁-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2008.

독립기념관, 『유자명 수기 - 한 혁명자의 회억록』, 1999.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78.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항일혁명투사 구파 백정기』, 2009.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덕일,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웅진닷컴, 2001.

이민호, 『열도의 독립운동사 의사 원심창』, 통일일보, 2022.

이정식,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2005.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스트의 국제연대와 교류-적자생존에서 상호부조로』, 창비, 2010.

김광제, 「상해시기 옥관빈 밀정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3, 2012.

김남태, 「사회대중당의 성립과 노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0, 2014.

김명섭, 「원심창의 항일의열투쟁과 육삼정의거」,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9, 백범학술원, 2012.

박찬승,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미수 사건’의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송실사학』 24, 2010.

이동연, 「여산 이용준의 생애와 항일독립투쟁」, 『제천 애국지사 이용태의 삶과 사상』, 역락, 2005.

임용식, 「애국지사 이용준과 아나키즘」, 『내제문화』, 2004.

〈Abstract〉

Korean Anarchists and Korean Anarchist
Organizations in China in the 1930s
– The Formation of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and the Patriotic Deed of
Yuksamjeong –

Park, Hwan

Since the early 1920s, anarchism has been adopted by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in China. In 1924, Korean anarchists in China established the Provisional Association of Korean Anarchists in China, and in 1928, they formed the Provisional Association of Korean Anarchist Communists, actively engaging in anti-Japanese struggles.

As the Japanese invasion, including the invasion of Manchuria, escalated in the 1930s, anarchists operating in China organized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in Shanghai to conduct more practical anti-Japanese activities. This organization, amidst the active development of leftist and rightist political movements on the Chinese mainland in the 1930s, represented an anarchist-oriented independence movement that rejected all political movements and ideologies. Also, from its formation in 1931

until its transformation into the Korean Revolutionary Youth Federation in 1937, this organization persistently conducted anti-Japanese activities over a period of seven years.

Notably, the anti-Japanese activities of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were so vigorous that they stood shoulder-to-shoulder with organizations like the Heroic Corps and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Additionally, they published a journal called 'Namhwa Tongshin' to promote anarchist ideology and, in 1936, as the possibility of the Sino-Japanese War outbreak intensified, actively pushed for a national front movement, advocating the unification of independence organizations to intensify anti-Japanese activities. Therefore,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is considered crucial to understanding not only the Korean anarchist movement in China in the 1930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and Korean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s of the same period.

One of the most notable activities pursued by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the Patriotic Deed of Yuksamjeong, may have failed, but i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awareness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even being prominently featured in newspapers. Consequently, it provided the driving force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ur national anti-Japanese movement even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Key Words :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the Patriotic Deed of Yuksamjeong, Namhwa News Agency, Won

Shim-chang, Baek Jeong-gi, Lee Kang-hoon, Lee
Gyu-chang

이 논문은 2023년 10월 20일에 접수되어 12월 2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